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300일 앞 '여수세계섬박람회'…섬의 시간이 시작된다

시민참여주간 지정 집중 홍보…행사장 공사 속도·포럼 등 준비 박차 경제적·환경적·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30개국 참가 목표 유치 활동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 람회'가 관광객 맞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365개 의 섬과 바다를 무대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여 수는 개막 300일을 앞두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를 위한 카운트다운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여수 시는 개막 'D-300'일을 맞아 지난 3~9일을 '시민 참여주간'으로 지정하고 시민 2500여명이 참여하 는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수 전역에서 58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박람회 붐업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했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 세계 최초로 '섬'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육지와단절된 섬을 경제적, 환경적, 역사·문화적 가치를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조명한다.

이 기간 여수는 기후위기 시대, 섬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닌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실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도시가 모여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 세계의 관심도 벌써부터 여수로 쏠리고 있다. 필리핀 세부, 팔라우, 페루, 일본 고치현 등 18개국 과 1개 국제 기구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30개국 참 가를 목표로 유치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박람회의 심장부는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이다. 5만 5000 평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는 8개 전시관은 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입체적으로 보여줄예정이다. 조직위는 9월 말 주제관과 전시관 착공에들어가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조직위는 행사장 공사속도를 높이는 한편,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임시 주차장7000여면을 추가확충하고 셔틀버스 운행계획을수립하는 등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랜드마크인 주제관을 중심으로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문화관 등이 들어서며, 각 전시관은 미디어아트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섬에 가지 않 아도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섬미 래관에서는 'AAM(첨단 항공 모빌리티)' 전시와 위그선(고속 수상선) 시연이 예정돼, 미래 교통수 단이 여수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전 세계 유명 섬과 한국의 섬을 축소판으로 재현한 섬 테마존에서는 한 자리에서 세계 섬 여행 을 즐길 수 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여수 섬을 모티브로 한 주제공연과 세계 섬 문화공연이 61일 간 매일 이어질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차별점은 실제 섬이 전시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금오도와 개도는 관람객들이 직접 섬을 체험하는 부행사장으로 운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는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에서 남해의 절경을 만끽하며, 섬 마을 주민과 교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감으로 섬을 느낄 수 있는 개도에는 섬 캠핑장이 조성되고, 카약·카누 체험, 갯벌 해산물 채취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이 학술대회 와 국제 포럼을 위한 부행사장으로 재탄생한다. 박람회 개막에 앞서 '제7회 섬의 날 행사'와 함께 '세계 섬 도시 대회', '국제 섬 포럼' 등이 개최되어 섬 관련 지식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D-300은 준비의 마지막 고비이자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300일 뒤 여수에서 전 세계가 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울산화력 사고 나흘째…아직 잔해 속에 사람이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 소 사고 나흘째인 9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으로 4·6호기가 위태롭게 서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매몰돼 3명 사망, 2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상태다. 붕괴 현장에는 현재 실종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적십자병원 5월 공간 활용 해법 목소리 듣는다

19일 '보존 및 활용 사업' 공청회

광주시가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청사진을 공개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서구 상무누리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의 활용계획(안)을 시 민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은 5·18 당시 역사적 상징성이 큰병원 본관의 외관을 보존 하고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동구 불로동에 자리한 5· 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로, 항쟁 당시 부상자 응급치료와 헌혈 행렬이 이어지던 생명·나눔· 연대의 상징 공간이다.

옛 적십자 병원은 광주시가 지난 2020년 7월 매입했다. 당초 소유자였던 서남대가 파산하자 민간매입에 따른 훼손 우려가 나와 시가 매입한 것이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본관과 부속건축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 사됐다. 시는 구조와 내진에 대한 보수·보강이 불 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계속 폐쇄한 상태로 보존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광주시는 적십자병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본관 외관은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내부를 시민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과거의 기록과 오늘의 일상을 잇는 '열린 기념·치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구상에 전시·체험 기능을 중심에 두고, 상시 헌혈이 가능한 공공 기여공간과 시민 휴식이 가능한 옥상정원, 트라우마 치유 실증공간을 결합해 교육· 참여·치유가 순환하는 동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발성 추모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 이용과 시민 참여를 통해 기억을 현재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

사업은 2020년 착수 이후 단계별 절차를 밟아왔으며,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비 199억원과 시비 91억원을 투입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간 구성, 전시 스토리라인, 운영 주체와 프로그 램 지속가능성 등 핵심 쟁점을 시민과 함께 다듬게 되다

계획안은 광주시청 민주보훈과에서 사전 전화후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18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향후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 여부를 확정한다. 별도의 개별 회신은 하지 않는다.

광주시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도시가 가장 아 팠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장소"라며 "보존과 활용 의 해법을 시민과 함께 찾고, 기억과 치유가 일상 에서 작동하는 광주다운 공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대 20%…광주시, 디지털온누리 7주 환급 행사

연말까지…예산소진시 종료

광주시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에 나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주간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광주 지역 온누리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로 누적 1만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다시 디지털온누리로 돌려준다. 회차별 개 인 한도는 2만원이며, 온누리상품권 기본 할인 10%와 더해 최대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급액은 1만원 이상 결제부터 1000원 단위로 적용되고 1000원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3만원을 쓰면 3000원, 20만원을 쓰면 최대한도인 2만원이 환급된다.

행사는 10일부터 일주일씩 총 7회차로 운영한다. 각 회차 종료 뒤 10여일 후부터 디지털온누리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되며, 지급예정일은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26일, 2026년 1월 2일, 1월 15일이다. 예산이 소진되면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행사 성과와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전남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7개 지구(5개 시·군)가 선정돼 2067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국비 1240 억원과 지방비 827억원이 집중 투입, 하수관로 정 비와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상습 침수 지역인 나주시(산포면·금 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 (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를 대상으로 이 번 공모에 적극 대응해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전남도는 새롭게 지정된 7개 지구를 포함, 총 34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를 관리 중이다. 이 날 기준 1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고 14개 지구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암신용정보 ^{직통전화 062) 521-4109} 010-2785-0073

